

전북 대표 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장수군, 지역 돌봄 강화

3년 연속 선정... 전국 지역축제 최초 ESG 경영(친환경 실천) 호평

무주반딧불축제가 3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반딧불축제는 축제 콘텐츠와 조직 역량, 지역사회 기여도, 개최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종합 평가에서 호평받아 대표 축제로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프로그램 흥미성 부문에서 도내 최고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대표 브랜드이자 관광상품인 무주반딧불축제가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을 견인하며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받았다는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로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객 38만여 명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찾아 주신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무주러서 기대하고, 반딧불축제러서 감동할 수 있도록 가치를 키워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며 도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된 무주군은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6월 또는 9월)의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으로, △친환경축제제로 특화해 △아간형 축



반딧불의 향연(안성낙화놀이 드론쇼 불꽃놀이 레이저쇼 별빛다리)

제, △체류형 축제로 각인시키는 한편,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축제의 지속 가능성과 만족도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반딧불축제는 해마다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소재로 자연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제28회 축제는 친환경 실천 인증 프로그램과 폐품 재활용 경진대회, 반디 친환경 콘서트 등을 개최한 것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태양광 발전)를 사용하는 등 전국 지역축제 최초 ESG경영(친환경 실천)을 선보이며 ‘자연특별시 무주’

의 힐링 여행’을 완성해 주목받았다. 또 일화용품·바가지요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실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생태환경축제로 호평을 받았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38만여 명이 방문해 찬사를 보냈던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선정 예코투어리즘축제, 세계축제협회 선정 프로그램 부문 동상, 한국상품학회 선정 대한민국상품대상 친환경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 지원 확대 추진

장수군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한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을 2025년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한 장수군의 자체 사업으로, 기존 월 20만원이었던 간식비를 4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방학 기간 동안에는 급식비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급식비는 지원은 익산시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두번째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아동 1인당 9,500원(1식)으로 책정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2025년 결식 아동 급식 최저단가를 준수한 금액이며 급식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통해 관내 식당 이용 또는 도시락 배달 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감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간식비 지원이 시작된 이후 월 4만원 씩 부담하던 보호자 이용료가 월 3만원으로 낮아졌으며 2025년 급식비 추가 지원을 통해 이용료는 더욱 인화될 전망이다.

최훈식 군수는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으로 아동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은 아동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2022년부터 계북면과 천천면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역아동센터와 더불어 지역 내 돌봄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제4대 김충국 진안소방서장 취임

진안소방서는 2025년 1월 2일자로 제4대 김충국 신임 진안소방서장(사직)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김충국 서장은 2007년 3월 제14기 소방간부후보로 임명돼 전북소방본부 기획예산담당, 전북소방본부 장비관리팀장, 전북소방본부 방호팀장,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



받아 2015년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로 소방에 몸 담은 지 17년이 되는 김충국 서장은 부드러운 인품을 바탕으로 평소 직원들간의 화합과 상호 존중을 중요시하고 각종 현장과 행정 업무에 탁월해 소방조직 내 신망이 두터하다고 알려져 있다.

김충국 신임 서장은 “진안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과 재난 대비 역량 강화로 신뢰의 소방, 전문성이 강한 소방으로 군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진안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친환경 방제 기술로 딸기 농가 ‘호응’

진안군은 2024년 추진한 전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 기술이 딸기 해충 피해 감소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작물 생태적 종합방제기술 시범”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딸기에 피해를 주는 진딧물과 응애, 일꾼파리 등 해충에 농약 대신 천적인 콜레마니 진디벌이나 칠레이리움애 등을 방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진디벌은 300~380마리 진딧물 몸속에 알을 낳아 죽게 하고, 칠레이리움애는 하루에 응애 알 30개와 어린벌레 20마리, 어른벌레 50마리씩 잡아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월부터 수확 작업을 하는 딸기 작목에 해충이 발생하면 방제가 쉽



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면 잔류 위험이 있는 현상을 해결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 사업 농가였던 이영란 씨는 “전적을 사용하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충의 밀도는 줄이면서 농작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아서 좋고, 약제 비용과 노동력을 줄이고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해서 좋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우수’ 체험장 선정

무주 생태적 가치·문화적 특성 반영 명소 인정

무주목재문화체험장이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목재문화진흥회가 주관한 2024년 우수 목재문화체험장 선정 공고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고는 국민에게 양질의 목재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목재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목재문화체험장은 체험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확보를 비롯해 △지역 연계를 통한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확보 노력, 그리고 △체험실적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이경일 산림휴양팀장은 “전국 49개 목재문화체험장 중 33곳이 지원한 가운데 무주는 신생 체험장으로서 우수상을 수상한 유일한 곳이 됐다”라며 “민·관이 합심해



거둔 결실인 만큼 산림주도형 휴양관광지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주군의 생태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 체험을 통해 산림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무주를 물성 매력을 지닌 명소로 각인시킨다는 취지에서 2023년 3월에 개장한 곳으로, 775.81㎡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은 목공체험장을 비롯한 상상놀이터와 전시시설, 휴식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목공예 체험을 비롯해 목재 조각, 가구 만들기 등 목재의 특성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돼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 자연휴양림 입구에 위치한 접견소는 물론, 연계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 무주목재문화체험장을 찾은 방문객은 1만 6천여 명으로 체험장에서 활용하는 목재의 50% 이상을 국내산으로 사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이용은 사전 예약(https://mujuwonwood.com/at/) 또는 현장 접수(문의 063-322-1113)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무주=전문선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진안장학숙, 31일까지 입사생 68명 모집

진안장학숙(전주시 덕진구 동가재미2길 34)이 2025년도 정기 입사생 68명(남 32, 여 36)을 모집한다.

입사 자격은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및 전북권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재학생으로 진안군에 보호자 또는 학생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입사 신청은 1월 2일부터 31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생활 정도,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입사생으로 선정되면 입사비 5만원(입사시 1회)과 매월 1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진안장학숙은 지난 2007년 지역과 사회발전의 주역이 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개관했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실을 2인 1실 기준, 34실로 운영하고 있다. 장학숙 내에는 독서실, 체력단련실, 미디어실 등이 있어 공부와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돼 있으며 학생들이 24시간 상주해 학생들의 안전 및 귀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영양 관리를 위해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개인택시기사 임종남 씨 장수에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은 번암면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임종남 씨가 지난날 30일 균정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매년 연말 장수군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임종남 씨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경기가 어려워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에 선행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전했다.

해당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기자